



2017-73

「경제」

2017 파라과이 경제 동향 전망

중남미

구경모 HK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🔗 주요내용

- 파라과이와 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7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남미에서 두 번째로 높음.
- 2014년부터 꾸준히 4%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- 이러한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는 마끼라도라와 소고기, 대두, 전락과 같은 에너지 수출의 증가세가 관련이 있음.
- 수출 호조에 따른 꾸준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, 빈부 격차 등 불평등의 심화는 향후 파라과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1. 이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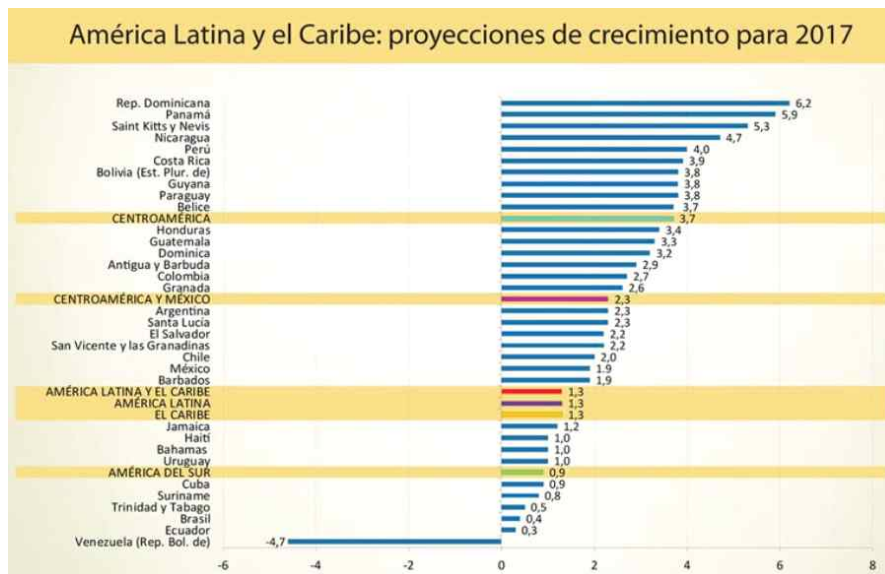
▶ 주변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가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.

□ 2014년 이후로 파라과이는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.

- 파라과이 경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변 대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.
- 파라과이는 2015년에 3%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6년에는 이를 상회하는 4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.
-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3.8%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.
- 이는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 집권 후 외국인투자(FDI)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볼 수 있음.

그림 1. 2017년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 및 권역별 경제성장률

(단위: %)



자료 :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(ECLAC, 검색일: 2017. 2. 15.).

□ 2017년 파라과이 경제 성장률 3.8%는 남미에서 페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.

-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(ECLAC)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에 따르면, 파라과이는 경제성장률이 3.8%로 남미에서 가장 높은 페루의 4.0% 다음이며, 볼리비아의 3.8%와 같음.
- 라틴아메리카 전체 경제성장률이 1.3%이며, 남미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0.9%임에 비하면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여 굉장히 높은 편임.

- 특히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가 경제적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라과이의 성장은 고무적임.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0.4%와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 2.3%, 우루과이의 1.0%, 베네수엘라의 -4.7%와 비교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수치임.

2. 원인과 분석

▶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의 동력은 마킬라도라¹⁾ 및 원자재 수출 상승세와 관련 있음.

- 브라질의 제조업 투자비용이 증가하면서 토지와 임금이 저렴하며 브라질과 인접한 파라과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킬라 제도를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함.
- 마킬라도라(maquiladora)의 성장
 - 파라과이는 2001년부터 마킬라 제도를 실시하였는데, 그 선구자격인 멕시코로부터 도입하였음.
 - 초반에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마킬라도라가 설립되기 시작함.
 - 특히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마킬라가 10% 성장하였음. 전체 마킬라도라의 80%는 브라질, 7%는 아르헨티나에서 투자하였고, 나머지는 유럽과 미국, 일본, 한국 등 아시아계 회사들임.
 - 마킬라도라의 주요 수출시장은 주로 브라질 및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이지만, 유럽과 미주로도 확대중임.
 - 마킬라 수출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, 2017년 1월의 마킬라 수출이 작년 1월과 비교하여 37% 증가함.
 - 2016년 1월에는 1,860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, 올해 1월에는 2,530만 달러를 수출하였음.
- 소고기와 대두, 에너지 등 원자재 수출의 호조
 - 파라과이 축산, 특히 소고기 수출량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넘어섰고 브라질 다음으로 2위에 해당됨.
 - 대두의 수출량은 브라질과 미국,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4위에 해당되며, 작년의 대두 생산량은 최고치를 경신하였음.

1) 편집자 주: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·재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.

- 파라과이 전력 생산은 브라질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타이푸 댐과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시레파 댐에서 생산됨.
- 총 전력 생산량은 파라과이 자국 소비량의 5배 이상을 생산하며, 전체 생산량의 약 74.9%를 수출함.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임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수출 상승세로 인해 비교적 경제 성장률이 높겠지만, 불평등의 심화는 향후 파라과이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- 수출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 - 파라과이의 저임금과 싼 지대,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법,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정부 관료와 정책으로 마킬라도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.
 - 파라과이의 제1의 시장인 브라질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 파라과이의 경제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.
-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수출 기업
 - 마킬라도라와 소고기, 대두 농장의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수출 지표와 달리 실제 이익이 파라과이 국민에게 이전되는데 한계가 있음.
 - 단적인 예로서 대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계 다국적 회사인 카길임.
-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갈등의 증가
 - 수출주도의 대기업농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농민과 원주민들이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대농장주와 농민, 원주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 - 또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게릴라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.
 - 최근 몇 년 사이에 파라과이에서는 대농주를 납치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,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.
- 공공부문의 투자 미비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
 - 파라과이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GDP의 12%로서 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. 페루와 콜롬비아는 GDP의 약 20%에 해당하며, 칠레와 우루과이, 브라질 등은 17% 전후에 해당됨.
 - 사회 안전망 등 공공부문 투자의 미비는 의료 및 보건, 교육 등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사회에서 소외됨으로서 취약 계층의 상황을 악화시킴.

□ 심각한 불평등 지수와 파라과이 경제의 한계

- 파라과이 1인당 국민소득은 4,081달러로 볼리비아(1인당 3,073달러)와 함께 최하위권임.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파라과이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6.4%로서 볼리비아의 54.9%와 아르헨티나의 40.9%, 우루과이의 30.4%보다 낮음.
- 세계은행에 따르면,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불평등 지수가 2위에 해당하며, 지니계수는 51.6임.
- 불평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파라과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. **EMERiCs**

출처

- <http://www.lanacion.com.py/2017/01/14/cepal-destaca-crecimiento-la-economia-para-guaya-2016/> (검색일: 2017.2.26.)
- <http://economiavirtual.com.py/web/pagina-general.php?codigo=10377> (검색일: 2017.2.26)
- <http://www.5dias.com.py/53896-regimen-de-maquila-aumento-37-en-enero> (검색일:2017.2.26)
- <http://www.5dias.com.py/45603-paraguay-como-1-exportador-de-soja-entre-los-paises-de-menor-produccion> (검색: 2017.2.26)
- <http://www.abc.com.py/edicion-impresa/economia/paraguay-exporta-75-de-la-electricidad-que-produce-1442619.html> (검색일: 2017.2.26.)
- <http://www.5dias.com.py/53774-paraguay-entre-paises-con-mas-baja-inversion-publica> (검색일:2017. 02.26)
- <http://www.5dias.com.py/53939-pib-per-capita-del-pais-esta-entre-los-mas-bajos> (검색일:2017.2.26.)

💡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